

수능 가채점 희비... 상위권↑ 중위권↓

이젠 논술·면접 대비

13일 끝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생들 간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최상위권은 오히려 성적이 올라간 수험생도 다수인 반면, 중위권은 대부분 모의고사 때보다 성적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9월 모의고사 성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오히려 점수가 올랐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중영역과 마재일 진학부장도 "상위권은 수리영역을 포함하더라도 올해 모의고사 성적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향상된 경우가 많았다"며 "최상위권을 위한 특별반을 갖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위권 학생들은 어려워진 수리영역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번 수능 가채점 결과 모의고사

성적보다 50점 가량 낮게 나온 수험생 황도(살레시오고 3년)는 "서울지역 대학에 가려고 망썩었는데 광주 쪽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며 "수리영역 때문에 점수를 다 까먹었다"고 말했다.

김모(수피아고 3년)는 "모의고사에서는 400점대 초반까지도 나왔는데 가채점 해보니 370점대에 머무른 것 같다"며 "논술 비중이 큰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2-2 모집에 원서를 넣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모(수피아고 3년)는 "모의고사에서는 400점대 초반까지도 나왔는데 가채점 해보니 370점대에 머무른 것 같다"며 "논술 비중이 큰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2-2 모집에 원서를 넣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모(수피아고 3년)는 "모의고사에서는 400점대 초반까지도 나왔는데 가채점 해보니 370점대에 머무른 것 같다"며 "논술 비중이 큰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2-2 모집에 원서를 넣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보고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106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부정 행위자 106명... 광주선 2명 적발

도록 조연애하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들은 이번 주말부터 당장 성균관대 수시2 모집의 2단계 전형인 논술 시험이 시작되고,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전남대, 조선대 등이 줄줄이 논술 및 면접고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반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학별 고사 준비에 착수했다.

한철민 부장은 "상위권은 그대로인데 중위권 점수가 눈에 띄게 떨어져 양극화가 벌어지게 됐지만 원점수를 적용하는 대학은 없다"며 "표준점수가 사용되기 때문에 실망부터 하기에 이르러,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이번 수능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돼 학생들 사이에 희비가 교차했다. 수능 다음날인 14일, 전남여고 3학년 교실에서 한 교사가 가채점 결과를 놓고 학생들에게 수능 이후 대입 준비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09학년도 수능 예상 등급컷

Table with columns for grade level (등급), subject (영역), and score (점수) for various universities like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etc.

2009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Table showing analysis of the 2009 university entrance exam results, comparing actual scores with predicted scores.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offering services like individual property and apartment management.

춧불 진압거부 의경 징역1년 6개월 실형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14일 '춧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길준 의경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시위진압 명령 거부와 양심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은 따로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고 경찰의 기본 임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라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불법조업 申어선 담보금 상향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한 담보금이 상향 조정됐다.

목포해양청은 "EEZ 내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의 경우 그동안 3천만~5천만원의 담보금이 부과됐지만 지난날 중순 이후 4천만~6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헤어진 남친 카드 몰래 쓰다 덜미

헤어진 남자 친구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한 20대 여성이 경찰서였다.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A(여·27)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7시 30분께 전 남친 친구인 B(30)씨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한 20대 여성이 경찰서였다.

A씨가 신용카드를 훔친 것은 아니어서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B씨가 허락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사용했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며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신용카드를 훔친 것은 아니어서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B씨가 허락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사용했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며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 성범죄자에 첫 '전자 발찌'

광주지법... 친딸·의붓딸 성폭행 40대 부좌 명령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첫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14일 친딸과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7년 여에 걸쳐 친딸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죄질이 나쁜데다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혼한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키우던 중 1999년 3월께 12살이었던 딸을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2001년부터 다른 여성을 만나 사실상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4년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당시 9살)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지난 9월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돈 받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광주지법, 현직경찰 구속

금품을 받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 갑시킨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유승룡 부장판

사는 14일 절도사건 수사과정에서 공범에게 돈을 받고 편파수사를 한 광주지법경찰청 광역수사대 김모(39) 경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유 부장판사는 그러나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모(38) 경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김 경사는 혐의 사실이 소멸되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해 영장을 발부했으나 김 경위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경사는 지난 4월 차량 전전절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장물취득범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휴일 흐리고 한때 비

주말인 15일 광주·전남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오후부터 점차 흐려질 것으로 보인다. 휴일인 16일은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 광주·전남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으며 구름이 많다가 오후 늦게부터 점차 흐려지겠다"며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나 차량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4~12도, 낮 최고기온은 16~19도로 예상된다.

휴일인 16일 광주·전남지역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거나 한 때 비가 올 것으로 보이며,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10, 낮 최고기온은 15~16도로 예보됐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Weather forecast section for November 15th,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regions like Gwangju, Jeonnam, and Jeju, and a table for the following days.

전남 기초단체 인사비리 잇단 내사

檢·警, 단체장 계좌 추적·승진 뇌물 여부 조사

검찰과 경찰이 전남지역의 기초단체 인사와 관련해 잇따라 내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남지역 모 기초단체장이 승진자 1명, 특채자 2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했다는 제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재신인 단체장이 제직하는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7월 단행된 여수시청 사무관 승진 인사와 관련해 승진할 가능성이 없는 공무원이 승진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가 있어 내사에 착수했다"며 "여수시 관련 부서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혐의가 드러나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7월 단행된 여수시청 사무관 승진 인사와 관련해 승진할 가능성이 없는 공무원이 승진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가 있어 내사에 착수했다"며 "여수시 관련 부서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혐의가 드러나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목적 BTL협약서 공개해야"

시·도 교육청 민자 사업

시민단체 공개요구 승수

민간투자시설사업(BTL) 협약 내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은 14일 광주지역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하 밝은 세상)'이 광주·전남도 교육청에 과거 BTL 협약서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은 "BTL 협약내용은 공익·공공적 성격의 정보이고 협약서의 일부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법인 또는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밝은 세상은 최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 BTL 협약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TL이란 Build(건설)-Transfer(이

형, 동생 택시 몰고 나와 女승객 추행

경찰 조사서 동생 사기 수배사실 등 통

40대 남성이 수배사실을 숨기고 택시회사에서 일하던 친동생의 택시를 몰고 나와 승객을 추행했다가 본인인 물론 동생까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14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택시기사 행세를 하던 노모(40·무직)씨는 지난 12월 밤 9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중앙동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박모(여·31)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강

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노씨는 이날 오후 5시께 동생(35)으로부터 광주 모 회사 택시를 넘겨받아 영업을 하던 중 박씨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추행을 당하고 택시에서 내린 박씨가 차량번호 중 일부를 외워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수사팀은 실제 택시기

사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7월 단행된 여수시청 사무관 승진 인사와 관련해 승진할 가능성이 없는 공무원이 승진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가 있어 내사에 착수했다"며 "여수시 관련 부서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혐의가 드러나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BTL은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달리 큰 운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학교건물과 도서관, 임대주택, 노인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 건설에 주로 활용되지만, 예산낭비와 특혜, 부당 계약 등과 관련한 잡음이 많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형, 동생 택시 몰고 나와 女승객 추행

경찰 조사서 동생 사기 수배사실 등 통

40대 남성이 수배사실을 숨기고 택시회사에서 일하던 친동생의 택시를 몰고 나와 승객을 추행했다가 본인인 물론 동생까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14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택시기사 행세를 하던 노모(40·무직)씨는 지난 12월 밤 9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중앙동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박모(여·31)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강

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노씨는 이날 오후 5시께 동생(35)으로부터 광주 모 회사 택시를 넘겨받아 영업을 하던 중 박씨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